

HYUNDAI MOTOR

2017 JUL. AUG

vol.336

**COVER STORY**

작지만 소중한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크고 빛나는 우리가 됩니다.  
<현대모터>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결 새로운 시선, 깊이 있는 울림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HYUNDAI MOTOR**

2017. 7 / 8  
vol.336





현대자동차 교양정보지  
 격월간 현대모터  
 비매품  
 발행일  
 2017년 7월 3일·통권 336호  
 신고번호 서초마00085  
 신고일자 2016년 8월 26일  
 발행인  
 이원희  
 편집인  
 박진호  
 기획·편집·디자인·사진  
 아이퍼블릭스  
 TEL. 02-3446-6362  
 인쇄인  
 이근우, 광명특수인쇄(주)  
 TEL. 031-948-9300  
 발행처  
 현대자동차(주) 홍보실 문화홍보팀  
 나형진 TEL 02-3464-2929  
 e-mail nhjok@hyundai.com  
 홈페이지 www.hyundai.com

SPECIAL [ PARK ]

06 TALK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  
 숨 가쁜 도시에 찍는 푸른 쉼표, 공원을 이야기하다

12 ARCHITECTURE

삶의 공간으로 들어온 공원

16 DESIGN

공원 디자이너 제임스 코너  
 모두의 공원, 도시의 위로와 생명이 되다

22 TREE

이백 살 나무를 품은 스물한 살 공원

26 ART

공원을 품은 영화



FEATURE



30 TOUR BY CAR

전남 담양, 숲길 따라 거닐며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38 FAMILY NUMBER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모니를 이루는 가족

42 PETFAM

내 고양이, 낮가림과 투정 없는  
 사교성 좋은 반려묘로 키우기

46 FATHER'S KITCHEN

달콤한 와인 파티와 함께 깊어지는 여름날의 낭만

50 IN THE BAG

데이서프숍 부부의 바다가 담긴 가방

54 DR. HM

-한여름에도 기죽지 않는 촉촉한 피부 관리법  
 -여름 휴가 후유증 규칙적인 습관으로 극복하기

HM INSIDE



58 ZOOM IN

SUV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작지만 강한 '코나'

64 TO THE NEXT

고성능차 개발의 산실 모터스포츠

66 NEWS

현대자동차 뉴스



도시의 조급함을 다독여주는 건 공원이다. 푸른 자연과 여유롭게 거니는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가도 좋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길게 드리운 나무그늘과 축제가 벌어지는 광장, 재잘거리며 흐르는 물길을 따라 걸으며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재생과 힐링의 공간, 공원의 오늘과 새로운 내일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 숨 가쁜 도시에 찍는 푸른 심표, 공원을 이야기하다





01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 2013년 열린 전시 <진례다반사>에 출품한 '우리 마을 숲'. 진례의 마을들을 답사하며 각 마을의 당산나무와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만든 인스톨레이션. 조경 디자인은 대상지의 땅과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02 어린이대공원에 디자인한 '커피엔터가든'. 잘 이용하지 않고 버려진 곳의 잠재력을 찾아 정원으로 만들었다. 디자인은 발견에서부터 시작한다.

03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위한 현상설계 단계의 첫 그림.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물길을 통해 경관과 움직임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큰 생각들은 남아 있지 않을까.

조경 디자이너 김아연 교수를 만나러 가는 날. 뜨거운 한낮 햇살이 교정에 쏟아져 내린다. 하지만 키 자란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 덕분에 걸음은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편리나 효율보다는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한 지혜가 새삼 감사하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또 지나는 학생들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제 맘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을 따라 연구실로 들어선다. 가지를 뺀 나무와 생생하게 물이 오른 식물로 가득한 공간은 주인을 닮아 고스란히 또 하나의 작은 공원이 되었다. 의자를 마주하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Q. 조경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조금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30대 초반, 설계 사무소에서 일할 때가 생각나요. 한 매체에서 '이색 직업'이라며 취재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받게 되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웃음) 사실 건축에 비해 조경은 상대적으로 근래에 생긴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연과 더불어 살던 시절을 지나서 도시화나 근대화를 거치며 일상 속에서 자연 환경을 접하기 어렵게 되면서 필요해진 직업이니까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조경 디자인의 개념이 자리 잡은 건 40년 정도 됐어요. 고속도로를 내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또 현충사 같은 국가적 역사유적지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조경이라는 분야도 알려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공원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도심 속에서 휴식과 놀이의 문화와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필요를 본격적으로 느끼고 이를 공원으로 계획해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1970~1980년대로 볼 수 있어요.

**Q. 최근에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로 7017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죠. 사실 어떤 흐름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유행을 하게 되면 저는 '아, 우리한테 저런 게 결핍되어 있었구나' 하고 되짚어 생각하게 돼요. 자연 속에서 위로받고 여유를 누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삶의 터전인 도시를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공원을 필요로 했고, 도시를 계획하는 분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공간이죠. 자연에 가깝되 또 도시에서는 멀지 않아야 한다는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공원이니까요. 자연과 휴식, 힐링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계속되는 만큼 공원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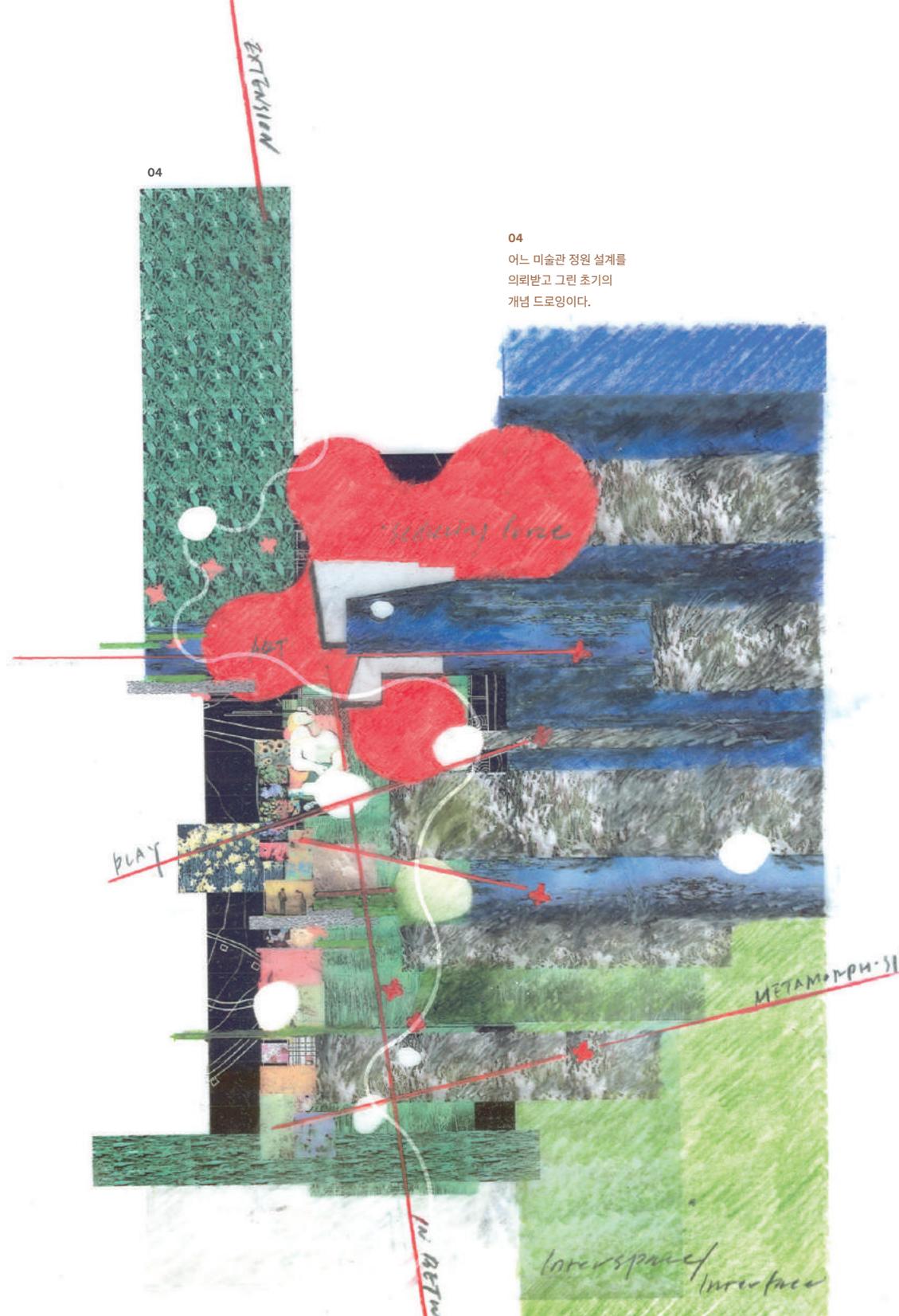
**Q. 국내의 공원 중 교수님이 특히 사랑하는 곳이 있나요.** 질문을 듣는 중에도 정말 많은 공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네요. 국내에선 선유도공원을 꼽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생태 재생공원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공간이 지닌 이야기와 역사를 이어나가는 연속성도 선유도공원의 매력이 아닌가 해요. 저는 켜켜이 쌓여 있는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생태 환경이 자리 잡고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공원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는 독일의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과 들여다볼 만하죠.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옛날과 오늘을 이어주는 게 최근 공원의 트렌드이기도 하니깐요. 마지막으로 센트럴 파크가 떠오르네요. 일 때문에 몇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해 질 무렵에 세상의 빛이 살짝 노을빛으로 바뀔 때는 정말 기존에 알던 세상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서 그렇게 자연의 시간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위안이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즐거움이죠.

**Q. 7~8월에는 어느 공원을 가면 좋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때니까 시원한 한강공원이 좋겠죠. 사실 도시에서 강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놀이터이자 휴식장소가 되고 또 반포대교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마음속 짝막한 고민들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가지, 저는 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강공원을 단순히 음식을 시켜 먹고 노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 혹은 사람과 같은 유기체로 인식하고 사랑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와 휴식이 되어주는 만큼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도 그 공간을 애정으로 어루만져주면 좋겠습니다.

**Q. 지금 공원이 주는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보면 성적이나 취업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사느라 정작 꿈을 꾸거나 즐거운 상상을 해볼 기회가 부족하잖아요. 여러 고민에 삶의 무게까지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공원에 들러 위로를 받고 새로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경이 궁극적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상하고 꿈꾸는 일이 중요하죠.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일을 하고 꾸지 못한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에서만큼은 '생산적이지 않을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Q. 최근에 몰두하고 계신 새로운 작업이 있으신가요?** 어린이대공원에 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니세프와 어린이대공원과 함께 2년 동안 진행해왔는데 곧 오픈을 앞두고 있죠. 어른들의 공간과 달리 어린이들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 정말 또 다른 의미의 도전이 아닌가 해요. 놀이터라고 하면 다들 아름답고 예쁜 그림을 떠올리지만 사실 디자인할 때는 안전과 아이들의 발달, 그리고 재미와 체험 같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다뤄야 해요. 잘 마무리해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뛰놀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유년 시절 기억의 대부분은 산과 들, 공터에서 뛰놀았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



04  
어느 미술관 정원 설계를 의뢰받고 그린 초기의 개념 드로잉이다.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조합놀이대 놀이터가 추억의 대부분이니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지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드는 건 곧 아이들이 평생 간직하게 될 추억을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했어요. 이름은 놀이터이지만 어른들을 소외시키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언제까지나 어린 시절의 동심이 살아 있다고 믿어요. 비단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100년 후의 공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처럼 기후 변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인공적으로 지정된 공간에 자연을 가두고 기술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곳이 공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상에서만 존재했으면 좋겠네요. 많은 이들이 공원의 가치를 자각하고 또 애정을 갖고 공원을 대한다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한 공원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해요.

사실 사람처럼 공원도 쉼 없이 진화하고 또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증명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원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공원은 즐거워야 하고 재밌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 생각해요. 창작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결국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 속에서 꽃피는 만큼 공원은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죠.

눈부신 햇살이 누그러지고 창밖으로 선선한 공기가 스며든다. 새들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하늘을 날아 산을 넘어간다. 문득, 공원에 가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본다.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본 적은?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본 적은 또 언제였을까. 오직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시대, 우리의 일상에, 도시의 속도에 작은 침묵 하나를 찍어보는 건 어떻게. 적어도 공원이라면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원으로 간다.



©Iwan Baan

01

01 자연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은 하우스 N

공원은 특별한 곳이다. 의미뿐만 아니라 위치도 그렇다. 공원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삶의 공간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직접 찾아 나서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공원이 우리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존의 개념을 깨고 공원의 모습을 한 우리 삶 속의 공간들을 소개한다.

## 삶의 공간으로 들어온 공원

우리의 하루를 구성하는 공간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 쳇바퀴 도는 도시의 삶에서 하루 동안 거처가는 공간이라고 해봐도 몇 되지 않는다. 당장 꿈꿈이 하나하나 쫓아봐도 다섯 손가락을 다 펴기도 전에 끝이 난다. 공간을 그 기능으로 분류하면 더 그렇다. 집과 일터, 여기에 먹고, 마시고, 노는 공간을 더하면 대개 이쯤에서 그친다. 이 중 집은 누구에게나 삶의 바탕이자 근간이 되는 공간이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이면서 지친 몸을 누이고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휴식의 공간이다. 갖다 붙이면 그 모두 나름의 의미가 되는 삶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 태초에 자연에서 나고 자랐으니 고향을 그리워하고 안락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녹음 짙은 한적한 공원을 찾아 지친 삶에 위로를 얻고 여유를 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일 터.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 공간에 자연을 담아낸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곳도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후지모토 소우는 집에 공원을 들였다. 이 젊은 건축가가 일본 오이타 현에 지은 하우스 N은 자연과 인공 그 경계에 존재하는 주거 공간이다. 마치 러시아 마트로슈카 인형처럼 상자 안에 상자가 들어 있는 형태의 세 겹의 흰색 박스로 이루어졌다. 가장 외부의 박스는 세상과 집의 경계, 내부 박스는 방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단순한 박스형 주택이 아니라 벽과 천장에 난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그대로 눈에 담기는, 외부와 내부의 구분마저 모호한 공간이다. 늘 자연을 가까이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박스와 박스 사이, 구석구석에 온통 나무를 잔뜩 심어 수목이 자라는 공원을 연상케 한다.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책을 펼치면 이곳이 곧 공원의 벤치가 된다.

후지모토가 도쿄 한복판에 지은 하우스 NA는 그 자



©Sou Fujimoto Architects

02

02 집을 한 그루의 나무와 나뭇가지로 표현한 하우스 NA  
03 녹색식물이 가득한 수직 조경 공간에서 천연의 공기를 마시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물원K



©식물원K

03

체가 나무다. 후지모토는 집 전체를 한 그루의 나무로 보고 독립된 개별 공간을 나뭇가지로 표현했다. 협소한 부지에 좁고 높게 자리한 25평 3층짜리 이 하얀색 프레임의 집은 자연광을 위해 사방을 온통 통유리로 디자인됐다. 창 너머 주택가의 풍경이 특별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일상이 존재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 머무를 수 있어 더 여유로운 식사 공간인 식물원K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다. 입구에서 먼저 반기는 '그린스타일'이라는 문구처럼 건물 안팎에 녹색식물이 지천이다. 비닐하우스를 떠올리게 하는 아치형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통이 트일 만큼 푸른 수직 조경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은 애초에 벽면에 꾸며진 정원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시작했다가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식물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환경 속에서 식물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송용호 대표의 바람 때문이었다. 숲 속 생태공원이라도 온 듯 사방의 벽을 둘러싸고 자라는 식물은 직접 재배한 친환경 채소와 생화다. 원시림처럼 우거져 보이지만 질서정연하게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법이 없다. 자연 속에서 천연의 산소를 마시며 즐기는 느긋한 식사는 금세 따스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일터는 집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때로는 집보다 많은 시

간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터라는 공간은 밥벌이의 고단함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그리 유쾌한 이미지의 공간은 아니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책장, 파티션으로 사방이 답답한 회색빛의 공간이 바로 사무실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발명기업 인벤션랜드는 일터라기보다 놀이 공간에 가깝다. 이곳은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딱딱한 기존의 사무실은 과감히 배제하고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공간을 꾸몄다. 축구장 세 개 크기의 부지에 F1 서킷, 해적선, 나무 위 오두막, 거인 신발 등 15개 테마의 사무실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다. 박물관 갑판 위에서 자유롭게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의 모습은 디즈니랜드의 어트랙션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고의 작품은 장난스러움에서 나온다(The best work comes out of the spirit of play)." 창업자 조지 데이비슨이 제시한 기업의 모토다. 이 판타지 존에서 나오는 발명특허는 연간 2,000개에 이른다.

공원을 품은 일상의 공간이 늘고 있다. 공원만의 가치와 매력 때문이다. 기존의 공간에 공원을 더하면 그 공간은 새롭게 재탄생한다. 공원이 우리 삶의 잣빛 공간에 푸른 심표를 남기고 있다.

04 테마파크를 모티프로 꾸며진 인벤션랜드는 일터라기보다 놀이공원의 모습에 더 가깝다.



04

©Inventionland



하이라인 파크는 전 세계 재생 공원의 롤모델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S - DESIGN

글. 이명석(문화평론가)

사진.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감수. 안동혁



공원 디자이너 제임스 코너

기차가 달리지 않는 맨해튼의 녹슨 철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타 모니카의 거대한 주차장을 무엇에 쓸까? 런던 올림픽이 끝난 뒤 남은 시설을 먼지 속에 방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고 빠른 답은 이렇다. <심시티> 게임처럼 볼도저로 밀어버리고 번쩍이는 쇼핑몰, 아파트, 고층 빌딩을 세워버리는 거다. 그러나 그곳 시민들은 평범하지 않은 멋진 답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제임스 코너를 소환했다.

# 모두의 공원, 도시의 위로와 생명이 되다



**제임스 코너, 도시 재생을 디자인하다**

제임스 코너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세계 여러 도시의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온 도시 조경 디자이너다. 그와 필드 오퍼레이션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은 뉴욕의 하이라인과 프레시 킬스, 라스베이거스의 시티 센터, 시애틀의 워터프론트 등을 통해 도시 한가운데 자연, 놀이, 예술이 함께하는 작은 파라다이스가 들어설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 산타모니카의 통바 파크, 런던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필라델피아의 레이스 스트리트 피어와 센트럴 그린을 통해 역사와 삶의 때가 묻은 장소를 생기가 가득한 공원으로 변신시켰다. 21세기의 화두인 ‘도시 재생’은 그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하이라인 파크, 초록의 생기를 불어넣다**

뉴욕은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도시다. 맨해튼 지도를 펼치면 수십 군데의 명소가 번쩍번쩍 손을 들며 도시의 랜드마크를 자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서쪽 강변을 따라 길고 우아하게 이어져 있는 녹색의 선, 하이라인(High Line)에 먼저 눈길을 보내게 된다. 이곳은 오래전에 전성기를 보내고 삼십여 년 동안 방치된 화물열차 철로였다. 당연하게도 철거 후 고층건물로 재개발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였으나, 지역 주민들은 이곳의 독특한 역사성을 보존해야 한다며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제임스 코너는 그들의 요청에 적절히 호응했고, 고가와 철로의 골격을 유지한 채

현대적인 공중정원을 만들어냈다. 건물 3~4층 높이의 하이라인을 오르내리는 과정은 얼핏 불편해 보인다. 그런데 제임스 코너는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시각적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 고가의 모서리는 멋진 전망대가 되어 또 다른 뉴욕을 발견하게 만든다. 하이라인의 계단은 주변의 갤러리, 레스토랑, 그리고 과거 공장을 개조한 첼시 마켓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공원은 녹지가 주는 허파 역할만이 아니라 거리와 거리를 연결하는 핏줄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하이라인은 21세기 건축사에 가장 강렬한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세계의 여러 도시로 하여금 낡은 유물을 초록의 생기를 불어넣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하는 작업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통바 파크, 도시 속 소협곡을 선물하다**

산타 모니카의 통바 파크(Tongva Park)는 옛 주차장 부지를 개조해 만든 공원으로 2013년 문을 열었

다. 이곳은 시청사에서 바닷가로 향해 있는 땅인데 활용도가 낮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시의 당국자들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터전으로 만들까? 제임스 코너가 답했다. “우리는 산타 모니카의 새로운 심장을 창조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는 사고, 환경, 상징적 가치를 모으는 장소죠.” 새로운 공원은 해안 도시의 개방성을 담으면서, 부근 산림 지역의 울퉁불퉁한 경관을 재현하고자 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 특유의 소협곡(Arroyo)에 영감을 받아 만든 구불구불한 언덕, 풀이 무성한 습지가 도시인들로 하여금 잠시 자연 속으로 탈출하는 경험을 하게 했다. 공원은 크게 네 개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의 언덕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토착 식물을 계절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발견의 언덕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언덕 미끄럼틀, 음악의 벽, 물놀이 시설 등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기다리고 있다. 관찰의 언덕에서 바다 쪽을 내려다보는 전망 구조물은 독특한 생김새로 시선을 끄는데, 보는 이에 따라 원주민의 움막, 새 둥지, 고래의 뼈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도나 스테른버그의 댄스 팀이 베니스 교향악단의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여기에 다목적 잔디밭, 그늘진 좌석 테라스, 편안한 소풍 공간으로 구성된 만남의 언덕이 이어진다. 유선형으로 리듬을 만들며 춤추는 분수는 도심 빗물 재활용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된 물은 언덕 아래의 바이오스웨일에 모여 재활용된다.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 폐허를 되살리다**

세계 곳곳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이후에 아무도 찾지 않아 ‘력서리한 폐허’가 된 공간이 있다.

- 01 하이라인 파크는 삼십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임스 코너가 수용하여 역사성을 유지한 채 현대적인 공중 정원을 만들어냈다.
- 02 통바 파크는 소협곡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일련의 오솔길을 디자인했다.
- 03 - 04 독특한 생김새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망 구조물은 통바 파크 내의 또 하나의 명소다. 많은 시민이 모여 통바 파크에서 도심 속 여유를 즐기고 있다.



05

퀸 엘리자베스 파크의 원호형 산책로는 밤이 되면 더욱 빛난다. 가로수길을 밝히는 조명은 역동적인 느낌과 축제 분위기를 고취한다.

06

놀이 외실은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식재 리본으로 구성된 놀이 공간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07

퀸 엘리자베스 파크의 오름 벽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이전에는 다리의 교대로 쓰이던 구조물을 활용해 오름 벽을 만들었다.



05



06



07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개최한 영국인들은 분명히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대회 이후 올림픽 파크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시킬 이를 찾는 데도 신중해야 했다. 제임스 코너에게 그중 남쪽 절반이 맡겨졌다. 그 결과 평화로운 북쪽 공원을 지나 중앙 광장의 압도적인 건축물들 - 지하 하디드의 수영 경기장, 아니시 카푸어의 전망 타워를 지나면 분주하면서도 사교적인 공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영국인들이 18세기 이래로 자랑해온 공연, 전시, 이벤트를 함께 하는 공공의 정원, 플래저가든(Pleasure Garden)의 21세기 확장판이다.

큰 나무가 늘어선 아크 형태의 산책로에는 혼자 머물거나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가구가 자리 잡고 있다. 생동감 있는 가판대 주변으로는 야외 시장이 펼쳐지고, 그 주변은 축제와 이벤트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관목, 키 큰 풀섬, 다년생 초화류 등이 채워진 리본띠 모양의 화단을 따라가면 크고 작은 콘서트와 전시를 위한 공간(the Event Rooms)이 나온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다. 전압 수중 펌프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수 미로와 맨발로 모래 위를 뛰놀 수 있는 텀블링 베이의 인기가 아주 높다.

**센트럴 그린, 일터와 자연을 잇다**

필라델피아 시민들 역시 제임스 코너에게 큰 애정을 느끼고 있다. 2011년 벤 프랭클린 다리 아래의 옛 부두 시설을 개조한 레이스 스트리트 피어(Race Street Pier)는 시민들과 강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2015년 문을 연 네이비 야드(Navy Yard Corporate Center)의 센트럴 그린(Central Green)은 일터와 자연을 잇는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습지, 초원, 조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현재는 필라델피아의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산업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센트럴 그린 위로 드론을 날려 내려다보면 큰 원 안에 작은 원, 도형, 기호가 옹기종기 들어앉아 있는 기하학적 구성에 매료된다. 이는 도시와 자연, 일과 놀이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떠올리게 한다.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작은 원들은 해먹에서 책을 읽고, 유선



08

센트럴 그린은 주변 직장인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순환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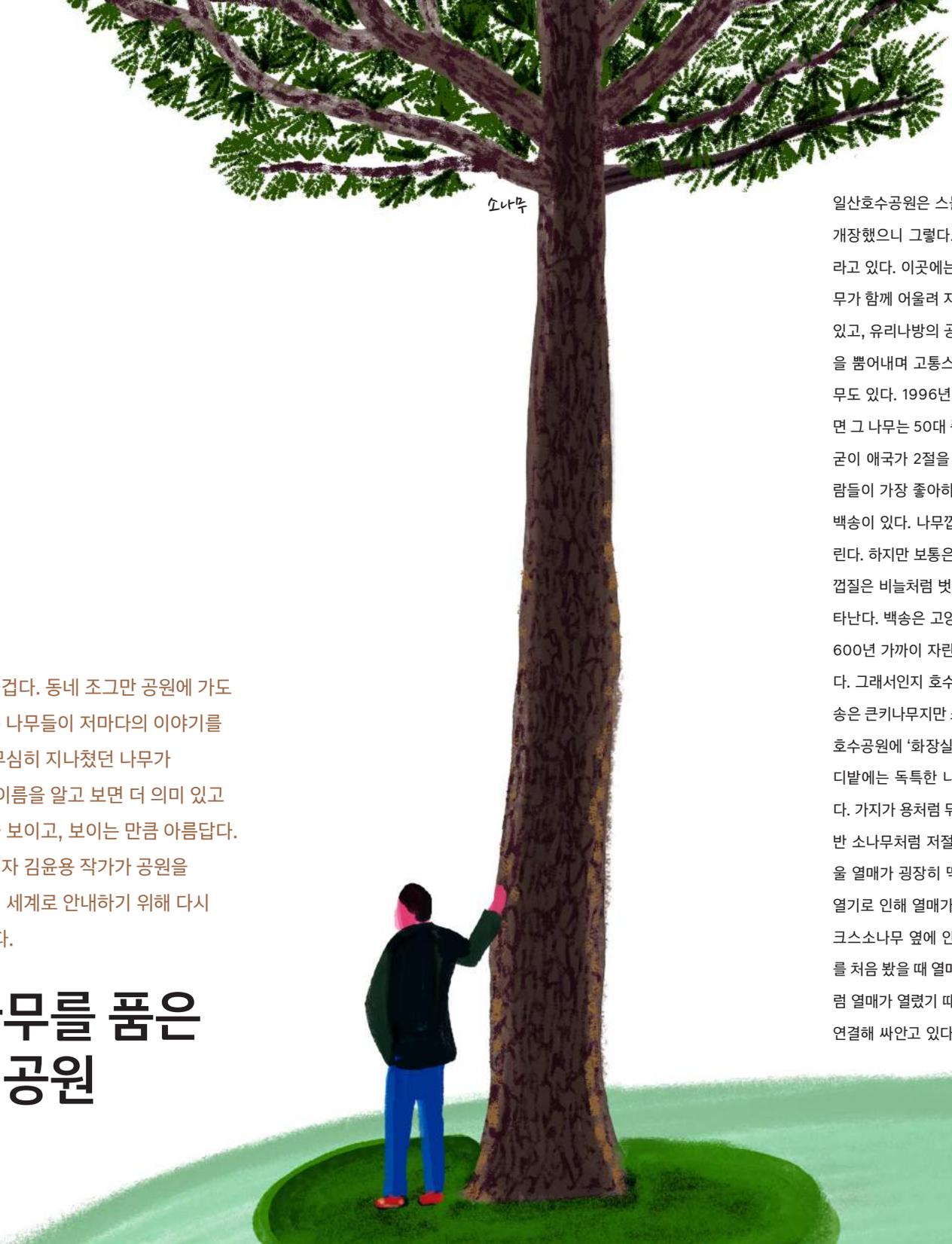
형의 철봉에 매달리고, 노란 탁구대에서 공을 주고받는 경험을 제공한다. 전직 시장인 마이클 너터(Michael A. Nutter)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독창적인 공간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회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필라델피아로 옮겨오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죠.” 센트럴 그린은 주변의 일터에서 일하는 만여 명의 직원에게 건강한 휴식, 열린 사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공간이 되고 있다.

**공존과 상생의 울림**

제임스 코너는 한국과의 인연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강원도 경포 호수 인근의 씨마크 호텔의 조경,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들어섰던 부지에 만들어진 부산시민공원의 설계를 맡기도 했다. 2011년 한국을 찾은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경은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건축물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지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인문학적으로도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서울로 7017’, ‘경의선 숲길’ 등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역사를 복원하는 등 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가 조록빛 공원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공존과 상생의 철학은 점점 큰 울림이 되고 있다.

나무를 알면 공원 산책이 즐겁다. 동네 조그만 공원에 가도 미처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우리를 맞는다. 무심히 지나쳤던 나무가 다 같은 나무가 아니고, 그 이름을 알고 보면 더 의미 있고 아름다워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름답다. <호수공원 나무 산책>의 저자 김윤용 작가가 공원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나무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산호수공원을 찾았다.

# 이백 살 나무를 품은 스물한 살 공원



소나무

일산호수공원은 스물한 살 푸르른 청춘이다. 1996년 개장했으니 그렇다. 호수공원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곳에는 큰키나무, 중간키나무, 작은키나무가 함께 어울려 자라고 있다. 그중에는 어린 나무도 있고, 유리나방의 공격을 받고 온몸에 송진 같은 진액을 뿜어내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아름이 넘는 왕벚나무도 있다. 1996년 개장할 때 서른 살짜리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50대 중년이 되었을 것이다.

굳이 애국가 2절을 대지 않더라도 소나무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다. 소나무과 나무 가운데 백송이 있다. 나무껍질이 하얗다고 해서 백송이라 불린다. 하지만 보통은 초록빛과 흰빛이 섞여 있다. 나무껍질은 비늘처럼 벗겨지고 예비군복 얼룩무늬처럼 나타난다. 백송은 고양시의 시 나무다. 고양시 송포동에 600년 가까이 자란 천연기념물 60호 백송이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호수공원 곳곳에 많이 심어놓았다. 백송은 큰키나무지만 소나무만큼 크게 자라지는 않는다. 호수공원에 '화장실문화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옆 잔디밭에는 독특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방크소나무다. 가지가 용처럼 뒤틀리며 자라고, 열매가 익어도 일반 소나무처럼 저절로 벌어지지 않는 소나무다. 술방울 열매가 굉장히 딱딱하다. 숲에 불이 났을 때만 그 열기로 인해 열매가 벌어진다는 특이한 소나무다. 방크소나무 옆에 안개나무가 자라고 있다. 안개나무를 처음 봤을 때 열매를 꽃으로 착각했다. 마치 안개처럼 열매가 열렸기 때문이다. 열매를 가늘고 긴 송털이 연결해 싸안고 있다. 연기나 안개가 피어나는 것처럼



백송

S - TREE

보여서 연기나무라고도 부른다. 영어 이름도 스모크트리다.

산딸나무는 가지마다 가득 피는 흰꽃처럼 보이는 헛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관상수로 많이 심는다. 십자가 모양 흰색 포엽을 꽃잎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포엽은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연녹색에서 밝은 흰색으로 변한다. 진짜 꽃은 포엽 중앙에 20여 개가 모여 피며 공 모양 황록색 꽃이다. 이 꽃들이 가을에 산딸기처럼 하늘을 향해 서서 붉게 익는다. 열매 모양이 산딸기를 닮아서 산딸나무라는 이름이 왔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주홍색 꽃이 피고 지는 배롱나무가 있다.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목(나무)백일홍이라고도 한다. 백일홍을 읽는 대로 말하면 배기롱, 배기롱이 줄어서 배롱나무라 부른다. 인동덩굴은 인동(忍冬)덩굴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추운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버텨내는 나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 인동덩굴은 흰꽃과 노란꽃이 함께 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금은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흰꽃으로 피었다가 노란꽃으로 변한다. 인동초라고도 한다. 그래서일까. 어느 초등학교에 갔더니 학교풀로 인동초를 게시하고 있었다. 인동초라는 이름만 가지고 풀로 판단했을 것이다. 인동덩굴은 풀이 아니고 나무다.

호수공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회화나무다. 회화나무 광장에서 자라고 있다. 가지를 쇠막대로 받

치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 나무는 나이가 200년이 넘었고, 키는 20m, 몸통 둘레 3.9m다. 하지만 나는 이곳 회화나무보다 더 좋아하는 회화나무가 있다. 회화나무 광장에서 호수를 건너면 사자상이 있다. 사자상에서 아랫말산을 5m 오르면 늠름하게 서 있는 회화나무. 우뚝하고 굵게 자란 나무에서 세월의 연륜을 느낀다. 그 앞에서 자라는 음나무도 제법 굵게 자라 가시를 버렸지만, 회화나무 앞에서는 아기와 다를 바 없다.

회화나무는 잎이 아까시(아카시아)나무처럼 깃꼴겹잎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시나무로 오해하기 쉽다. 꽃이 드문 여름인 7~8월에 풍성한 연노랑꽃이 핀다. 꽃이 수없이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 수북하게 쌓인 나무 아래 연노랑 꽃은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는다. 회화나무는 중국이름이 괴목이고, 꽃이름이 괴화다. 학자들은 '괴'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회'이니 회화나무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비나무, 학자수로도 부른다.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자유롭게 뻗어 생각이 자유분방한 선비와 학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공원에는 나무가 있다. 어쩌면 나무가 있어서 공원인지도 모른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인생을 사는 우리처럼 나무도 그렇다. 한 번쯤은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갔던 나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나무를 알면 공원 이 새롭다.





## 공원은 늘 우리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과 달리  
공원에서는 조금 느려도, 조금은 느긋해도 좋습니다.  
아이처럼 뛰놀기도 하고,  
나무 이름을 읊으며 꽃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느새 공원도 우리에게 나지막이 이야기 들려줄 테니까요.  
괜찮다고, 이렇게 덥고 힘겨울 땐 자신의 품 안에서  
한숨 쉬어가도 괜찮다고.

# 전남 담양, 숲길 따라 거닐며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울창한 대나무 숲과 높게 자란 메타세쿼이아 길 덕분에  
담양의 여름은 시원하고 여유롭다.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걷다  
지칠 듯하면 정원과 정자가 나타나 피곤한 다리를 쉬고  
호흡을 가다듬게 해준다.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 시대와 세월을  
노래한 선비들의 정신을 찾아서 담양으로 길을 떠나본다.

글. 허재훈(편집실) 사진. 김동율, 담양군청



01

### 장거리 운전,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부터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최고’라는 이들에게 딱 걸맞은 여행지가 있다. 대나무의 고장으로 이름 높은 전라남도 담양이다. 하늘 높이 자란 대나무가 따가운 햇살은 가려주고 바람은 불려들어 시원함을 넘어 서늘함을 선사해준다. 문제는 주요 대도시에서 담양까지 가는 만만찮은 주행 거리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한참을 달려야 담양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챙겨보자.

가장 먼저 체크할 항목은 냉각수와 에어컨이다. 엔진의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확인하고 예비 냉각수를 준비하도록 하자. 최근까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다. 장거리 여행 동안 쾌적한 차내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에어컨 필터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미리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동행과 일정에 따라 챙겨야 할 짐도 만만치 않다. 좌우의 균형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적재하고

- 01 유럽풍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더불어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로 이름 높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자연과 역사를 테마로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 02 우리 전통 정원 양식이 잘 담겨 있는 선비의 정원 소재원.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짙은 나무그늘이 여행길의 피로를 씻어준다.
- 03 담양 죽녹원은 울창한 대나무 숲은 물론, 우리 전통 정자와 유명 CF 촬영지를 관람할 수 있다. 한옥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관광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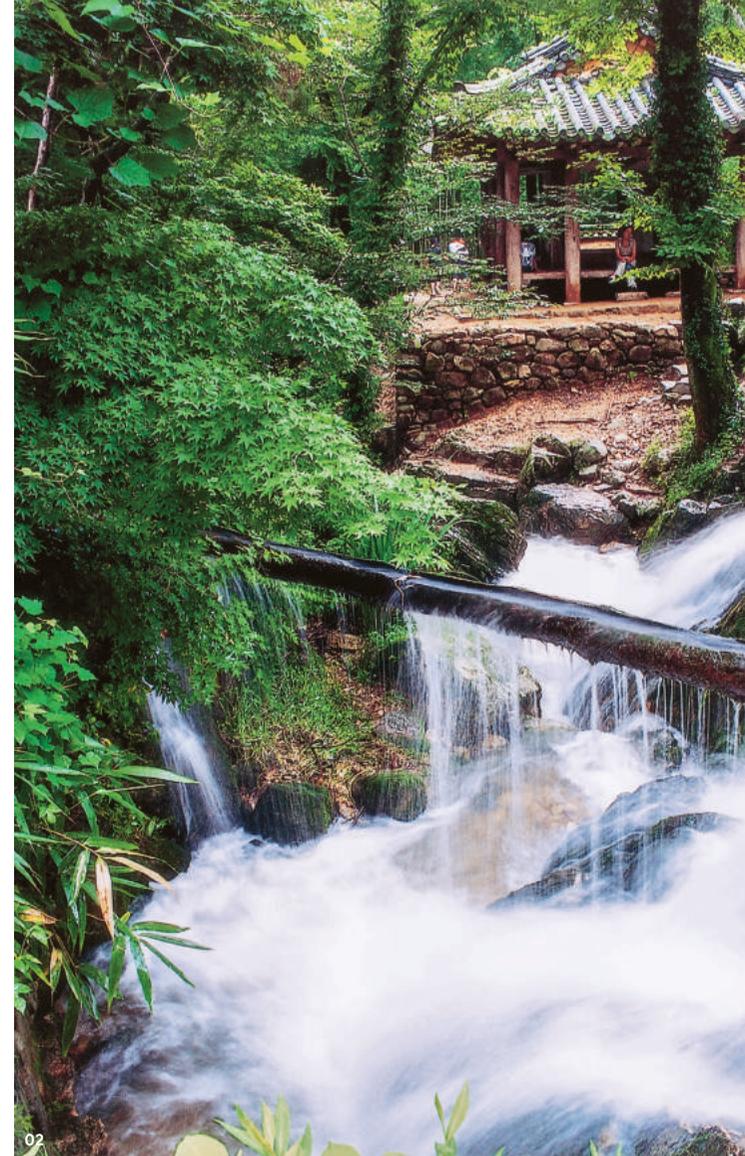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얼라인먼트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면 본격적으로 길 위에 올라도 좋다.

### 길 따라 걸으며 만나는 숨겨진 담양의 매력들

담양IC를 거쳐 담양군 내로 진입해 24번 국도 순창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담양을 대표하는 길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다. 수직으로 곧게 뻗으며 자란 자태가 든든하고 하늘로 가지를 뻗어 올려 그늘을 만들어주는 배려가 돋보인다. 4월이면 잎이 푸르게 돋기 시작해 한여름이면 울창한 숲 그늘을 이룬다.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 외래종 나무 메타세쿼이아 길의 조성된 건 1972년이다. 지금은 5,000여 그루 가까운 나무가 한적하고 아름다운 길을 이루며 담양의 대표 포토 존으로 톡톡히 활약하고 있다. 2000년 당시, 담양 순창 간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도 있었지만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국도변 가로수길을 지킬 수 있었다.

먼 길을 달려온 피로를 씻고 잠시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 길을 걷다 보면 체온은 물론, 조금함에 달궈진 마음의 열기까지 차분히 가라앉는다. 가족사진을 찍기에 좋은 포인트인 만큼 여행의 시작을 기념하는 한 컷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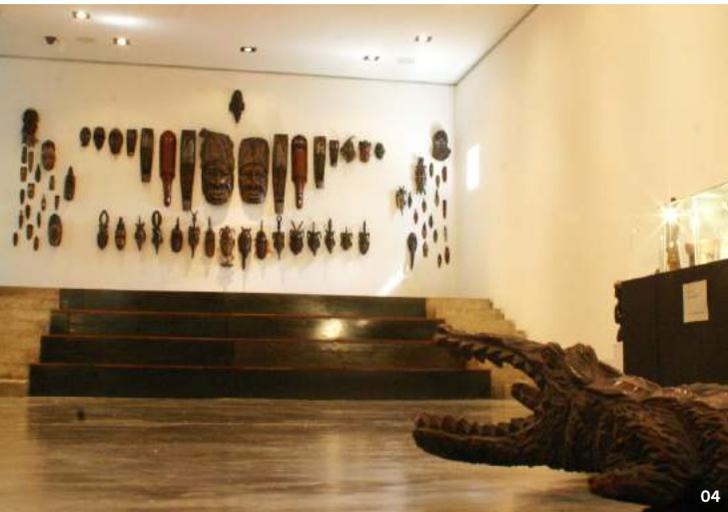
한편, 메타세쿼이아 길의 초입에는 이국적인 건물들과 조경으로 이루어진 작은 유럽,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02



03



04

있다. 아기자기한 벽화와 독특한 콘셉트의 조형물이 특히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빵집과 식당도 자리하고 있으니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여행의 의욕을 돋워보자.

**대나무와 전통 정원에 깃든 선비의 정신**

담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나무다. 곧게 뻗은 기상과 푸른 절개가 선비의 마음과 같아 많은 문인이 사랑한 나무다. 특히 341,981m<sup>2</sup>의 너른 터에 자리한 죽녹원을 찾으면 하늘로 쭉 뻗어 오른 울창한 대나무 숲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한낮에도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청정한 기운을 내뿜는 대숲 길을 걷다 보면 시 한 수가 절로 떠오른다. 죽녹원에는 대나무 외에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가사 문학을 꽃피운 한국의 전통 정자를 품고 있는 시가문화촌과 CF 촬영지, 이이남 아트센터 등을 갖추어 담양의 자연과 전통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죽녹원 안에는 한옥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이들이 1박 장소로 애용하고 있다. 한옥의 구조를 유지한 가운데 편리한 생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여름철 휴가 시즌에는 많은 여행객이 물리는 만큼 예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죽녹원이 잘 가꾸어놓은

테마 정원이라면 소쇄원은 자연 그대로의 멋과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전통 정원이다. 줄 지어 나무를 심고 꽃을 배치한 현대식 정원과 달리 소쇄원은 꾸밈이 없고 딱히 경계도 없다. 낮고 투박한 돌담으로 안과 밖을 나누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가 새삼 돋보인다.

1520~30년 즈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쇄원(명승 제40호)은 민간이 만든 정원 중에서 우리의 전통 양식이 제대로 표현된 곳으로 꼽힌다. 이곳 소쇄원을 조성한 이는 조선 중종 때의 선비인 소쇄공 양산보다. 스승으로 모시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유배되고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입신양명이 모두 덧없는 일임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 터를 일구었다.

소쇄공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 애지중지 보살펴온 소쇄원을 절대 팔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지금까지도 후손들은 그 뜻을 이어 소쇄원을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고요한 가운데 물 흐르는 소리가 마음속에 낀 때를 벗겨내주는 듯 청량하게 들려온다.

**고즈넉한 정자에서 노래하는 자연의 멋과 아름다움**

담양에는 대나무 숲만큼이나 정자도 많다.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시를 짓고 교류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 바로 정자다. 물이 맑고 산세가 좋은 담양인 만큼 정자를 지을 절경이 그만큼 많았으리라 짐작이 간다.

04 죽녹원과 관어공원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아트센터 대담은 다양한 전시와 지역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담양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05 담양의 정자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가문학을 꽃피운 문학의 산실이기도 했다. 한국시가문학관에서 담양 시가문학의 정수를 체험해보자.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면양정이다. 면양정을 세운 이는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면양정 송순이다. 이름 대신 쓰는 호도 정자의 이름을 따서 지으니 송순의 면양정 사랑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관직을 내려놓고 여생을 후학을 가르치고 두루 교류하기 위해 지은 면양정은 담양의 제월봉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한양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주변의 많은 선비와 더불어 나라를 걱정하고 또 시를 읊으며 선비의 일상을 이어갔다. ‘굽어보면 땅이고 우러러보면 하늘’이라는 뜻을 지닌 면양정에 앉아 옛 선비들이 감상했을 땅과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여행의 작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

면양정이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면 식영정(명승 제 57호)은 창계천가 언덕 위에서 서 있는 정자다. 주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식영정은 스승 석천 임억령을 위해 제자이자 사위인 서하당 김성원이 지었는데, 특별한 꾸밈이나 더함 없이 단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가사문학으로 송순과 더불어 언급되는 송강 정철은 이곳 식영정에서 김성원을 흠모하며 ‘성산별곡’을 지었다. 담양의 크고 작은 정자를 돌아보며 작은 정자에 앉아서도 자유롭게 뜻을 펼치고 노래한 선비의 호방함을 잠시나마 헤아려보는 것도 좋겠다.



05

# 91.3km

담양 여행 코스 총 주행거리

## 1박 2일 담양 여행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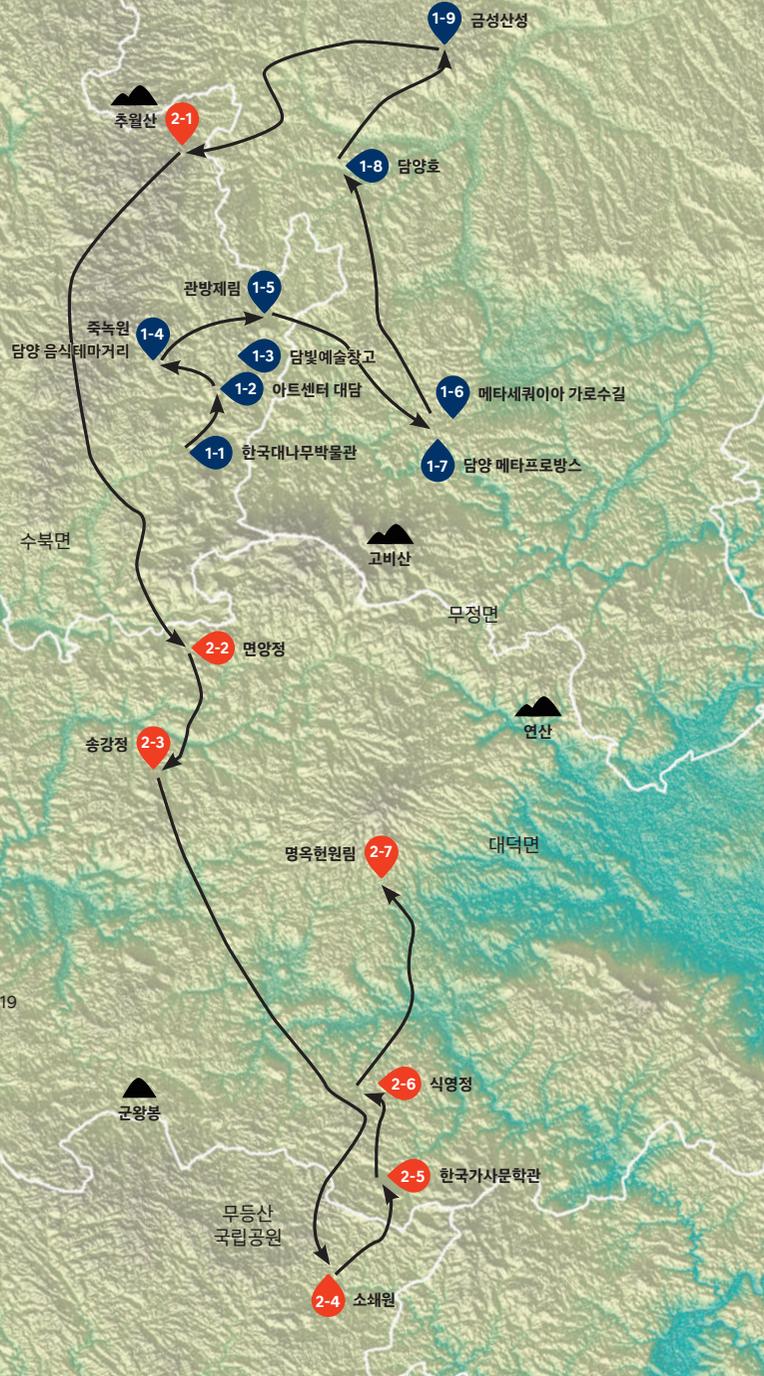
### 첫째 날

- 한국대나무박물관
- 아트센터 대담(2.3km / 6분)
- 담빛예술창고(1.9km / 8분)
- 죽녹원, 담양 음식테마거리(0.3km / 2분)
- 관방제림(0.5km / 2분)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3.4km / 9분)
- 담양 메타프로방스(도보 / 6분)
- 담양호(11.7km / 18분)
- 금성산성(15.6km / 22분)

### 둘째 날

- 추월산(14km / 21분)
- 면양정(15.1km / 21분)
- 송강정(4.4km / 6분)
- 소쇄원(13.6km / 17분)
- 한국가사문학관(0.9km / 1분)
- 식영정(도보 / 7분)
- 명옥헌원림(7.6km / 16분)

- 1-1 한국대나무박물관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35
- 1-2 아트센터 대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언골길 5-4
- 1-3 담빛예술창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75
- 1-4 죽녹원, 담양 음식테마거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 1-5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
- 1-6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9-14
- 1-7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2-17
- 1-8 담양호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리리
- 1-9 금성산성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 2-1 추월산 전북 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 2-2 면양정 전남 담양군 봉산면 면양정로 382-11
- 2-3 송강정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송강정로 232
- 2-4 소쇄원 전남 담양군 남면 소쇄원길 17
- 2-5 한국가사문학관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77
- 2-6 식영정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59
- 2-7 명옥헌원림 전남 담양군 고서면 후산길 103



## 담양 여행 길잡이 담양을 즐기는 몇 가지 방법

### 01. 담빛예술창고



폐산업시설이었던 곡물창고가 국가 문화재생산업의 일환으로 담빛예술창고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남송창고라는 옛터를 간직한 채, 전시 공간과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담빛예술창고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로운 휴식을 선물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75 / 061-380-3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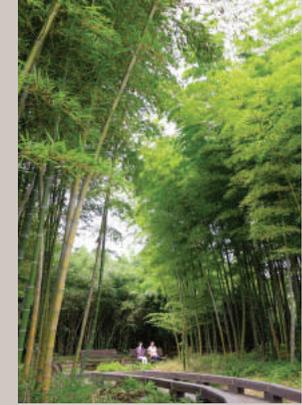
### 03. 담양 메타프로방스



유럽형 건축물과 조형물로 인해 이국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담양 속의 작은 유럽 마을이다.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메뉴의 먹을거리와 식사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노천카페와 벽화, 다채로운 색상의 건물 덕분에 사진 촬영 핫 스팟으로 사랑받고 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2-17 / 061-383-1710

### 02. 한국대나무박물관



담양의 명품 죽제품을 보존, 전시, 시연, 판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1981년 담양읍 담주리에 개관해 운영해오다 1998년, 오늘날의 공간으로 확장 이전했다. 죽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죽제품 생산에 관한 기술 정보 교류의 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해마다 5월 담양대나무축제에 맞춰 전국 대나무공예대전도 열린다.

무축제에 맞춰 전국 대나무공예대전도 열린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35 / 061-380-2902

### 04. 담양 음식테마거리



담양죽순푸드비리지와 국수거리를 아우르는 담양 음식테마거리는 한국관광 100선, 죽녹원을 중심으로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로 이어지는 삼색숲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대통밥, 떡갈비, 죽순요리, 담양국수, 창평국밥 등 담양에서 손꼽히는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많은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맛의 거리이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모니를 이루는 가족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한정구

가족의 정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마음과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있다. 가족만큼 많은 순간과 추억을 공유하는 앙상블 리즈 콰르텟이 그렇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들이 음악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리즈 콰르텟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귀를 기울여본다.

리즈 콰르텟은 아시아 최초로 목관 악기만으로 구성된 앙상블이다. 리즈 콰르텟을 따라다니는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이들은 비록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살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는 실제 가족 못지않게 돋보인다.

앙상블이 만들어지는 데는 브랜든 최의 활약이 컸다. 리즈 콰르텟의 창단자이자 리더인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많은 앙상블 무대를 접했다.

“다양한 앙상블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무대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꼭 앙상블을 만들어서 연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지기 바수니스트 희국 씨에게 마음을 전했고 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_브랜든 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던 김희국 씨는 목관 악기별로 마음이 잘 맞는 연주자들을 생각했다. 그렇게 색소폰 브랜든 최, 바순 김희국, 오보에 홍윤정, 클라리넷 주동우가 리즈 콰르텟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가족이 됐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리즈 콰르텟은 지금도 꾸준히 새로움과 낯섦이라는 영역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다. 리즈 콰르텟은 클래식 이 어렵고 소수만이 즐기는 전문물이 아닌, 대중들도 쉽게 듣고 즐겨워할 수 있는 장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이 클래식을 접할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물질이 아닌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의 활동이 한결 더 의미 있는 이유다.

“연습을 마치고 나서 항상 다 같이 모이는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연습 때는 아무래도 긴장감도 있고 예민하다 보니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분위기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여요. 가끔은 화식을 위해 연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웃음) **\_주동우**

리즈 콰르텟은 음악적 가치 그 이상을 공유한다. 이들은 동료를 넘어선 가족으로 앙상블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눈다. 자연히 서로의 고민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한번은 희국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냥’이래요. 저

희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건 거예요. 다들 저희 부모님의 안부까지 묻고 함께 걱정을 나눠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_홍윤정**

“가장 가족 같다고 느낄 때는 무대 위에서예요. 무대공연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짧은 시간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일 년 가까이 연습한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때 팀원들과 함께 무대에서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해요.” **\_김희국**

이들이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가족적이다. 리즈 콰르텟은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도 균열 없이 앙상블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멤버들은 하나같이 그 비결을 ‘충분한 소통과 긍정적인 성격’ 덕분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서로를 향한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가 오늘의 리즈 콰르텟을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리즈 콰르텟은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한다.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처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에게 도전과 도움을 주는 롤모델이 되고 싶어 한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를 두드리는 리즈 콰르텟의 표정은 긴장보다는 기대감으로 밝고 환하다. 상상을 현실로 이뤄낸 이들은 지금도 한 단계씩 올라서고 있다. 아직도 단계별로 이뤄나갈 목표가 많기 때문이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응원이 리즈 콰르텟의 화창한 내일을 더욱 기다리게 한다.



01

**01. 멤버들의 분신과도 같은 리드와 리드 케이스**

리드를 빼고는 리즈 파르텟을 설명할 수 없다. 리드는 나무 케인을 이용해 악기의 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리드에서 따온 리즈 파르텟은 연습 전후로 리드를 정성스럽게 깎고 손보며 리드 손질에 공을 들인다. 단순한 날숨을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듯이 리즈 파르텟 역시 리드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

**02. 웃지 못할 해프닝의 아이패드와 페이지 터너**

국내에서는 생소한 페이지 터너는 아이패드로 악보를 보며 발로 눌러 악보를 간편하게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다. 한 번은 무대에서 실제 연주 중에 실수로 끄지 않은 와이파이 때문에 영상 통화가 걸려와 곤욕을 치렀다. 웃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이 아이템은 리즈 파르텟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이템이다.

**03. 소통을 위한 녹음 장비**

리더 브랜든 최가 미국 유학 시절 공부한 녹음 기술을 바탕으로 연습 때마다 직접 녹음을 한다. 연습 후 녹음을 들으며 전체적인 악기의 균형을 잡고 수정할 사항을 생각한다. 이 녹음 장비로 녹음해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연습 영상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리즈 파르텟의 방향성이 잘 드러나는 아이템인 만큼 의미가 있다.

**04. 감동을 선물하는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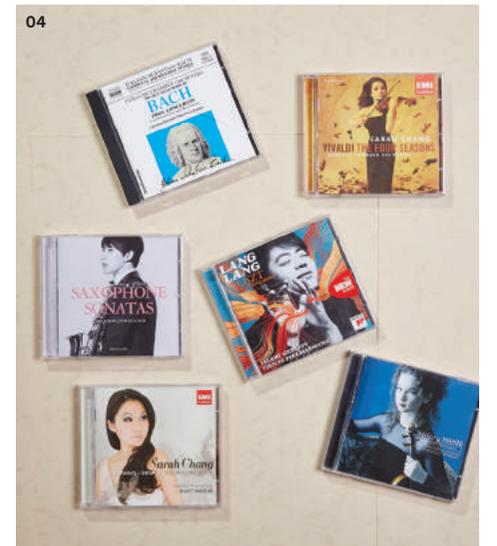
다양한 클래식 앨범은 리즈 파르텟의 걸어갈 길을 확인시켜준다. 내년 발매할 리즈 파르텟의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즐겨 듣는 앨범들이다. 특히 리더 브랜든 최가 한국인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는 최초로 전 세계에 발매한 앨범은 의미가 남다르다.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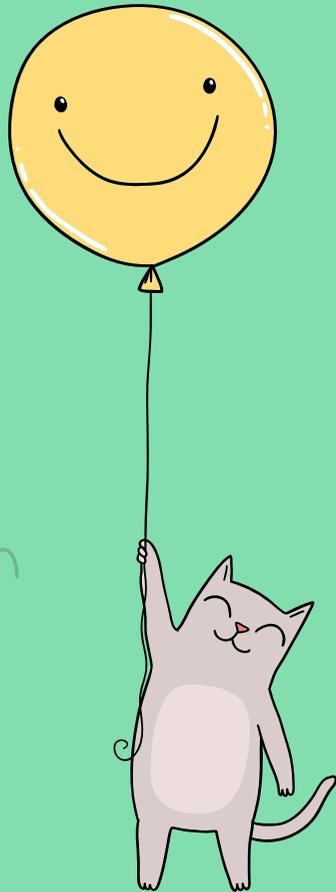
04

# 내 고양이, 낯가림과 투정 없는 사교성 좋은 반려묘로 키우기

아웃도어 라이프의 계절, 여름이면 반려묘와 외출 기회도 많아진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반려묘와의 이동이 두렵거나, 반려묘의 문제 행동으로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교성 만점 반려묘로 키우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 노진희(24시복약동물병원 원장)



## 01 고양이와의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고양이와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인데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휴가철에는 고양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도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장기간 고양이만 두고 집을 비우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이죠. 고양이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권을 주장하는 동물인 데다가 자신의 환경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런 고양이에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행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여행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캐리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캐리어와 친해지는 것은 고양이가 이동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리어에 음식과 장난감을 넣고 고양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심 없이 캐리어에 출입하기 시작하면 캐리어를 들고 집 안을 한 바퀴 도세요. 이때 캐리어의 작은 구멍 때문에 고양이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방을 수건으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고양이는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결 줄어들게 됩니다. 차에 타는 연습은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고양이와 함께 차에 탄 후 운행은 하지 않은 채로 시동 거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차의 진동 소리를 듣고도 고양이가 예민해지지 않는다면 동네를 한 바퀴를 도는 정도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다섯 시간 전에 밥을 주고 출발 직전에 물을 먹여야 합니다. 고양이와 여행을 하려면 캐리어, 화장실, 모래, 물그릇과 밥그릇, 생수, 사료와 캔, 상비약 등 많은 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이동은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고양이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애완동물 호텔이나 펫시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신중히 생각해본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 02 고양이에게 낯선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  
저희 집 고양이는 낯선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요.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 보는 상대가 다가가면 피하는 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하고 절대로 고양이를 만지거나 들어 올려 안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계심이 많은 고양이에게 다가거나 손을 내밀어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양이를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이런 고양이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눈 키스’입니다. 고양이를 볼 때는 빤히 쳐다보는 대신 눈을 깜빡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계속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고양이가 낯선 사람에게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되면 ‘핑거 터치’라는 스킨십이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을 살며시 고양이 코에 갖다 댄 후 고양이가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으로 턱이나 이마를 쓰다듬는 것인데요, 고양이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스킨십입니다.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관계가 굉장히 발전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합니다. 사람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서로의 성격을 알고 맞춰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와 사람도 서로 친해지고 스킨십을 하기까지 충분히 서로에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 03 사람을 무는 고양이를 어떡하죠?

“  
고양이가 사람들을 물어요.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커서는 물면 아프고 겁이 나서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고양이는 할퀴기는 해도 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많은 고양이가 사람을 무는 문제 행동을 합니다. 상처가 작아 보여도 동물의 이빨은 날카롭고 세균이 매우 많기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나거나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물렸을 때는 먼저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씻어 냅니다. 그 후에 상처 부위를 포비돈이나 헥시딘으로 소독합니다. 피가 날 때는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꼭 눌러 지혈한 채로 병원에 갑니다. 치명적인 상황을 면하기 위해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 고양이라면 사람을 무는 것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아기와 마찬가지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잇몸이 간지러워 뭔가를 씹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 고양이가 깨물기 시작했을 때 주인이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고양이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무는 고양이가 귀엽다며 손가락을 대주고 “물어, 물어” 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하면 고양이의 물기 행동이 굳어집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공격성을 절대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고양이의 무는 행동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어린 고양이의 문제 행동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큰 고양이가 무는 행동을 한다면 꽤 문제가 되는데요. 고양이가

공격성이 강하기도 하고 물리면 보호자가 크게 다치기 때문에 꼭 고쳐야 합니다. 무는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고양이에게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고양이가 물었을 때 보호자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실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5분 정도 있다가 나오셔야 합니다. 대신 보호자가 없어진 뒤 고양이가 잠전하게 있었다면 간식으로 보상해줍니다. 또 물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5분 정도 뒤에 나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양이는 무는 행동을 하면 외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사람을 무는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다.



## 달콤한 와인 파티와 함께 깊어지는 여름날의 낭만

가족에게 멋진 요리를 해 주고 싶지만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하는가?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요리가 있다.  
누구든지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카나페와 상그리아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보자.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김진호 푸드스타일리스트. 장보현





간단한 재료만으로 맛과 멋을 동시에 잡는 요리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킬 카나페와 상그리아를 만들어보자.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만 있다면 어디서든 로맨틱 가이가 될 수 있다.

카나페는 간단하면서도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다. 요리에 자신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카나페는 재료 본연의 맛을 이용해 단시간에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다. 상그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레드 와인에 풍부한 과일의 풍미를 더하면 완성되므로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향기와 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플레이팅까지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카나페와 상그리아는 그 자체로 훌륭한 요리가 된다. 짧은 시간에 잡지에서나 볼 법한 근사한 요리가 완성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카나페와 상그리아는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그 시기에 가장 달고 맛있는 제철 과일을 사용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와인 파티, 아내와의 오붓한 저녁 식사, 가족 모임의 후식 등으로 카나페와 상그리아를 준비해보자. 양손에 멋진 요리를 들고 주방을 나설 때, 어깨가 한껏 올라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노소에게 인기 만점인 카나페와 더위를 식혀줄 상그리아는 여름날의 낭만적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달콤한 와인 파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프로슈토 카나페 / 상그리아



### 프로슈토 카나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활용하는 것도 프로슈토 카나페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 [재료(카나페 4개 분량)]

바게트 4쪽, 올리브유 · 파슬리 적당량, 슬라이스 체다 치즈 2장, 프로슈토 2장 (약 70g), 그린 올리브 4개

01. 슬라이스 바게트에 올리브유와 파슬리를 뿌린 뒤 150°C 오븐에서 약 5분간 굽는다.
02. 체다 치즈와 프로슈토를 바게트 위로 차곡차곡 쌓는다.
03. 그린 올리브를 얹어 마무리한다.

### 상그리아

레드 와인에 다양한 과일을 넣으면 매력적인 상그리아가 완성된다. 과일에 따라 다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상그리아만의 매력이다.

#### [재료(상그리아 1병 분량)]

레드와인 1병(750ml), 사과 · 오렌지 · 레몬 각각 1개씩, 로즈메리, 고수, 세이지, 바질 등의 허브 적당량

01. 사과, 오렌지, 레몬을 슬라이스한 뒤 상그리아용 포트에 담는다.
02. 레드 와인을 과일과 담긴 포트에 붓는다.
03.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킨다.
04. 숙성된 상그리아 위로 로즈메리, 고수, 세이지, 바질 등의 허브를 띄워 향을 가미해도 좋다.

## ‘데이서프숍’ 부부의 바다가 담긴 가방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이승준

파도를 피하는 대신 과감하게 그 위로 몸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부산 송정에 자리한 데이서프숍의 조윤현, 김윤희 부부다.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파도를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이 서핑이라 말하는 부부의 가방을 통해 열정과 도전,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서퍼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최근 부산 송정은 서핑 스팟으로 인기가 좋다. 유명세 덕분인지 많은 서핑숍이 들어서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데이서프숍이 그 주인공이다. 데이서프숍을 운영하는 조윤현 대표와 김윤희 씨는 서핑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심포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두 서퍼에게 서핑과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조윤현 대표는 데이서프숍을 운영하며 서핑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 바다를 만났다. 일찍이 바다의 매력을 깨달은 그는 아직 서핑의 인지도가 낮았던 2002년부터 송정에서 자리를 잡고 서핑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핑과 관련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다. 서핑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핑 관련 협회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그 경험을 살려 현재는 데이서프숍을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이 서핑을 사랑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4년 전 데이서프숍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스포츠였다. 그렇기에 누구나 와서 편하고 쉽게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더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바다 위의 해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숍 이름을 데이서프숍이라 지었다. 이렇게 부부의 서핑 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한여름에도 기죽지 않는 촉촉한 피부 관리법

여름철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피부는 금세 망가진다. 피부가 망가진 후에야 회복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꾸준한 관리로 한여름에도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철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관리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보자.

정리. 권지혜(편집실) 감수. 판교 유엔아이 피부과



여름철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다. 아무리 좋은 피부과를 찾아가더라도 피부가 망가진 후에는 이미 늦기 마련이다. 한 번 망가진 피부는 회복이 어렵다. 한여름에도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한여름에 피부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꼼꼼한 세안이다. 피부 온도가 1°C 올라갈 때마다 피지분비량은 10%씩 올라가며 모공이 확장된다. 확장된 모공 속에는 피부 노폐물이 쌓이기 쉽다. 세안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키는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피부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되도록 유분 함량이 적고 모공을 막는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품을 내 마사지하듯 골고루 씻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피부 관리법은 충분한 수분 보충이다. 여름철 피부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같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여름철에는 습관처럼 수시로 물을 마셔 체내에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셔야 손실된 수분을 피부 속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외에도 오이, 수박, 토마토,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는 것도 수분 섭취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피부 관리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는 것이다. 무방비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멍치게 해서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또한 기미와 주근깨 등 각종 잡티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저하, 여름철 일광화상 등의 피부 문제를 유발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겹치 한마디를 짝 채운 양을 피부에 펴 발라야 한다. 또한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 차단력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시간과 양을 지켜서 바를 때,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안쪽 진피층까지 충분히 흡수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야외 활동 시에는 SPF 지수가 4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실내 활동 시에는 SPF 지수가 3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여름철 피부 관리 팩



**감자팩**  
감자의 아트로핀 성분은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지켜준다. 감자팩은 피부 미백과 트러블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밀가루와 함께 사용할 경우 화이트닝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질 제거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 ① 감자를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간다.
- ② 밀가루와 꿀을 섞어 적당한 농도로 맞춘다.
- ③ 얼굴에 감자팩을 올리고 15분 뒤 세안한다.



**수박팩**  
수박은 수분 함유량이 95%로 기미와 잡티 예방에

탁월하다. 또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주름 예방과 미백 작용,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

- ① 수박은 껍질의 흰 부분만 남겨 먹어서 간다.
- ② 간 수박 3큰술과 밀가루 3큰술, 꿀 1작은 술을 넣고 섞는다.
- ③ 마스크 시트 위에 수박팩을 올리고 15분 뒤 세안한다.



**녹차 요플레팩**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레몬에 비해 비타민C가 5배 가량 많다. 녹차는 더위에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 ① 녹차가루와 요플레 1팩, 꿀 1큰술을 준비한다.
- ② 준비한 재료는 점도가 걸쭉해지도록 섞는다.
- ③ 팩 브러시를 이용해 넓게 펴 바르고 15분 뒤 세안한다.

# 여름 휴가 후유증 규칙적인 습관으로 극복하기

휴가를 다녀온 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휴가 기간 중에는 일상에서 긴장하고 있던 몸과 마음이 풀리고 느슨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학교로, 회사로 복귀하면 이유 없이 나른하고 우울해지곤 한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가족의 '휴가 후유증'을 극복해보자.

정리. 권지혜(편집실) 감수. 내미지 한의원

## 1. 일상에 복귀 전 충분한 휴식 취하기

긴 휴가 뒤에 곧바로 학교나 직장에 복귀 하면 학업이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휴가 후유증이 심해진다.

여행의 즐거움도 좋지만 휴가 후 컨디션을 고려해서 복귀 전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최소 하루 정도라도 무리한 스케줄을 피하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휴가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 2. 생체리듬 회복하기

숨가쁜 휴가 일정과 불규칙한 수면시간은 평소 유지해온 생체리듬을 깨트린다.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휴가를 보내면 생체리듬을 회복하지 못해 휴가에서 돌아온 후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체리듬 회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수면 시간은 7~8시간으로 정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자기 전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돼 숙면에 도움이 된다. 낮잠은 아주 피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오래 자지 않는 것이 좋다. 일상에 복귀 후 일주일 정도는 생체리듬 회복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피하자.

## 3. 제철 과일과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몸의 피로를 덜어준다. 휴가지에서는 지방과 염분이 많은 고기류를 주로 섭취하게 되므로 일상으로 복귀하면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이, 토마토 등의 채소와 자두, 수박 등의 수분이 많은 과일은 휴가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단, 찬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온에서 적당한 시간 둔 뒤 섭취하도록 하자.

## 4. 가벼운 마사지와 스트레칭

피로 해소를 위해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이 생성되어 쌓이면서 피로가 심해진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엔도르핀 분비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피로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2~3시간마다 기지개를 펴거나 맨손 체조를 하면 휴가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조깅을 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간단한 반신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UV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작지만 강한  
'코나'

# Kona

글로벌 소형 SUV 코나가 베일을 벗었다.  
기술력의 집약은 물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코나만의 가치를 제공하며 SUV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차세대 SUV 디자인 방향성 제시

코나는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마트한 챌린저를 지향하는 젊은 감성을 가진 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 디자인됐다. 탄탄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구현한 로우 & 와이드 스탠스를 바탕으로, 캐스캐이딩 그릴과 슬림한 주간주행등(DRL), 메인 램프가 상/하단으로 나뉜진 분리형 컴포지트 램프가 이용됐다. 또한 아이스하키 선수의 보호장비를 연상시키며 범퍼와 램프, 휠을 보호하는 형상의 범퍼 가니시인 '아머' 등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다.

반면 실내 디자인은 강렬한 느낌의 외관과는 극적으로 대비되게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로우 & 와이드 스탠스를 통해 전고를 낮춰 주행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지상고 및 전고 최적화를 통해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 01 하와이의 휴양지에서 이름을 딴 코나는 커피의 부드러운 느낌과 해양 레포츠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반영해 태어났다.
- 02 가로형 크러시 패드를 적용해 넓고 편안한 이미지를 함께 느낄 수 있다.
- 03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은 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과 터보 차저의 놀라운 조합으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 04 LED 주간주행등(DRL)은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다.

### 소형 SUV에서 기대하기 힘든 강력한 주행성능

'작지만 강한' 코나는 상위 차급에 적용된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을 비롯해 1.6 디젤 eVGT 엔진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비자들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파워트레인을 다양하게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고출력 177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과 최고출력 136마력(ps), 최대토크 30.6kgf·m를 발휘하는 1.6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적용했다. 또한 강력한 엔진성능과 함께 최적의 주행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신규 소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4륜 구동 시스템 &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다.

**‘작은 차는 안전하지 않다?’ 편견을 깨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

코나는 ‘작은 차는 안전하지 않다’는 기존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신규 개발한 플랫폼에 초고장력강 및 핫스탬핑 공법이 적용된 부품을 대폭 확대 적용했다.

초고장력강을 포함한 고장력강의 비율을 동급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차량 구조 간 연결 강성을 높이는 구조용 접착제를 114.5m나 적용해 비틀림 강성을 동급 경쟁차 대비 20% 이상 높였다. 특히 측면 충돌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도어 내부에 현대차 최초로 인장강도 120kg/mm 이상 급의 초고장력강 사이드 임팩트 멤버를 적용함으로써 부품의 부피와 무게는 줄이고 더욱 높은 충격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첨단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 센스’를 대거 적용함으로써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고려하는 동시에 차세대 글로벌 SUV가 갖춰야 할 안전성의 표준을 제시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유지 보조, 운전자 부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이 포함돼 동급 경쟁 차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05**  
초고장력강 확대 적용으로 차체 평균 강도 향상을 통한 승객 및 주행 안전성을 강화했다.

**06**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유리판에 주행정보를 표시한다. 작동 시에만 자동으로 올라오는 수직 개폐 방식을 적용했다.

**07**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해 데일리 카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08**  
2열 시트 폴딩을 통해 원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코나는 상황에 맞춘 공간을 제공한다.

**09**  
전방 주차보조 시스템은 차량을 주차할 때 전방 장애물과의 거리를 단계별로 미리 알려줘 충돌 사고를 예방한다.



06



07



08



09



05

**활용도 높은 편의사양 채택**

코나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급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적용했으며, 컴바이너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치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것과 같은 운전 몰입감을 제공한다.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 운전석 앞유리에 주행정보를 투사하는 방식과 달리 별도의 유리판에 주행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숨겨져 있다가 작동 시에만 자동으로 올라오는 수직 개폐 방식을 적용해 고급감을 구현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시킬 수 있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인치 내비게이션, 크렐 사운드 시스템 등도 사양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 고성능차 개발의 산실 모터스포츠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다. 상대를 앞이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스포츠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한다. 모터스포츠 역시 마찬가지다. 빠듯한 규제 속에서 빈틈과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은 창의적이고 기발한 기술을 여럿 낳았다. 모터스포츠에서 검증한 기술을 양산차로 녹여 넣는 선순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중이다.

글. 김기범(<로드테스트> 편집장)

서킷엔 중앙선과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다.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달려도 좋은 무법천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서킷은 경주차 제원부터 개조 범위, 운영 방식 등을 아우른 각종 규정으로 빠듯이 옥죄진 감옥 같다.

따라서 각 팀은 상대방을 앞설 기회를 찾기 위해 기를 쓰고 규정의 빈틈을 찾는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팔짱 끼고 있을 리 없다. 해마다 경주별로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규정집을 개정한다. 지난해 미처 챙기지 못한 빈틈을 봉쇄하고, 특정 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운영 주체와 참가팀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속에서 창의적이고 기발한 기술이 싹튼다.

가령 코너를 보다 빨리 감아들기 위한 노력은 공기역학 설계를 낳았다. 자동차 경주 가운데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포뮬러(F1) 머신이 좋은 예다. 고속에서 공기의 흐름이 차체를 짓누르는 무게(다운포스)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한다. 차체 곳곳에 심은 날개 덕분이다. 한때 이 힘을 높이기 위해 차체 밑바닥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묘안까지 나왔다.

터보차저는 배기량 규제를 지키면서 힘을 키우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단단하면서 가벼운 소재 또한 모터스포츠에서 먼저 등장했다. 무게를 줄일수록 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 까닭이다.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과 세라믹 브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언뜻 연상이 쉽지만 경주차는 먹성도 다독여야 한다. 연료를 별컥벌컥 들이마실 수록 수시로 텅 빈 뱃속 채우느라 금쪽같은 시간을 까먹기 때문이다. 각종 부품의 마찰저항을 줄일 코팅, 흡배기의 원활한 흐름을 이끌 통로 설계와 밸브 구성, 힘을 낭비 없이 전할 변속기 등 동력 전달 계통의 효율을 뽐족이 높일 기술이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무르익었다.

자동차 역사의 여명기에 모터스포츠는 제조사의 이름을 알릴 기회였다. 주요 경주에서 우승하면 “내 차를 만들어 달라”는 부자들의 주문이 빗발쳤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부가티 등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자동차 제조사로 거듭났다.

모터스포츠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기술은 양산차로 스며든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세계랠리선수권대회(이후 WRC)에 참가 중이다. WRC는 F1, 세계내구선수권(WEC)과 더불어 세계 3대 모터스포츠로 손꼽힌다. WRC는 이 중 유일하게 양산차를 개조해 쓰며 다양한 노면을 달린다.

마니아는 열광했지만 부작용도 생겨났다. 경주차가 중심을 잃거나, 언덕 아래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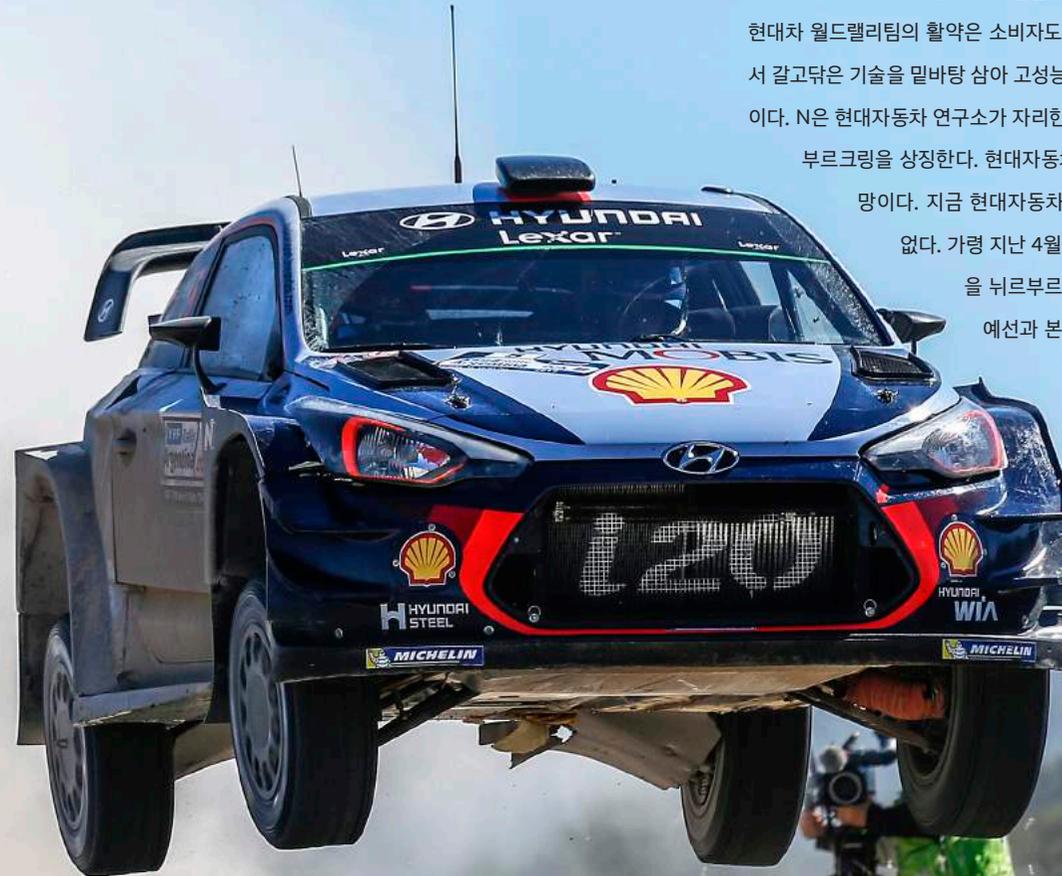
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980년대를 ‘WRC의 암흑기’라고 부르게 된 계기다. 이후 주최 측은 출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WRC 경주차 최고 클래스의 출력은 1980년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현대자동차는 1990년대부터 WRC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998년 포르투갈 랠리의 F2 클래스에 출전한 티뷰론이 신호탄이었다. 기대 이상의 성과로 자신감을 얻

은 현대자동차는 2000년 최상위 클래스에 도전했다. 이때 앞세운 머신이 바로 엑센트 월드랠리카였다. 그러나 라이벌의 벽은 높았다. 저조한 성적으로 고민하던 현대자동차는 2003년 9월 WRC에서 손을 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는 WRC 복귀를 선언했다. 이듬해 독일에 현대모터스포츠 법인을 세우고, 2014년 시즌부터 WRC 무대에 현대자동차 깃발을 나부끼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는 복귀 첫해 종합 4위, 이듬해엔 3위에 올랐다. 방심했던 라이벌은 현대자동차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복귀 3년째인 2016년 제조사 부문 2위에 올랐다. 역대 WRC에 참가한 자동차 제조사 중 최단 기록이다. 올해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현재 i20 랠리카는 300마력의 1.6L 터보 엔진과 시퀀셜 6단 변속기를 얹고 네 바퀴를 굴린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의 활약은 소비자도 설레게 한다. 현대자동차가 WRC에서 갈고닦은 기술을 밑바탕 삼아 고성능 브랜드 N을 구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N은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자리한 남양, 신차 테스트의 성지 독일 니르부르크링을 상징한다. 현대자동차 N 브랜드의 신호탄은 i30가 될 전망이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i30N의 막바지 담금질에 여념이 없다. 가령 지난 4월과 5월, 2.0L 터보 엔진을 얹은 i30N을 니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레이스에 출전시켜 예선과 본선을 완주했다. 니르부르크링은 울창한 숲을 헤집는 서킷이다. 길이 25km에 코너가 73개나 되고, 고저차가 심해 구역별 날씨도 제각각이다.

현대자동차는 올 하반기 유럽에서 i30N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차의 펄펄 끓는 피가 흐르는 고성능차를 우리나라 브랜드로 만날 순간이 코앞이라니, 벌써부터 설레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다.





###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침묵 속의 시간' 전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1층에서 다니엘 아삼의 전시 <Time in Silence(침묵 속의 시간)>를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 다니엘 아삼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예술과 건축, 퍼포먼스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는 설치 작품인 'Ash and Steel Stage Set(재와 강철의 무대 세트)', 'Hourglass(모래시계)'와 영상 작품 1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묵묵히 흘러가는 '시간'을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 주제의 이름을 가져온 영상 작품 '침묵 속의 시간'은 작가가 그동안 선보인 작품을 망라해 그의 미래 지향적 세계관을 영화처럼 시각화한 것으로,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방향성 '모던 프리미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브랜드와 자동차에 대한 예술적이고 직관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자동차가 되는 모터쇼

현대자동차는 어린이들이 상상력으로 그린 자동차와 스토리를 실제 모형 차량으로 제작해 전시하는 어린이 상상 자동차 모터쇼 '제2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Brilliant Kids Motor Show)'를 오는 11월 실시한다. 제2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며, 이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가 어린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을 창의력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만 4~13세)는 누구나 7월 24일까지 홈페이지([www.brilliantkidsmotorshow.com](http://www.brilliantkidsmotorshow.com))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8월 4일 발표할 계획이다.



